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드리며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신 줄 압니다. 이번에는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한 뜻을 가진 죽음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영적인 죽음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살아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실제로 먹었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 당장 죽지는 않았고 다만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창세기 2장 17절]

2. 육체적 죽음이란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몸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지 몸을 입고 있던 영혼이 그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적으로만 죽었던 아담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19장 28절]

☞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불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 죄함으로써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따라서 죽음이라는 형벌도 함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로마서 5장 12절]

☞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1.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는 어느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창세기 3장 19절]

2.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 줄 누군가를 내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하며 인류의 대표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베드로전서 3장 18절]

3.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만으로 죽음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나시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고린도전서 15장 4절]

4. 우리도 그분을 따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6장 40절]

☞ 성도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1. 죄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맺고 마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베드로후서 2장 12절]

2.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요 복된 것이요 떳떳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위한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죽음이므로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요 유익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11장 25-26절]

3. 성도는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자기의 죄인 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도의 부활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겨우 자신의 믿음만 지킨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다쳐올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죽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영생이라는 약속 아래 구종하고 축복된 것으로 다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한 자들의 죽음은 저주요 형벌로서 다가오

로 몸서리쳐지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잘 준비하여야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생활로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용어 해설

- 방 언 -

일반적으로 방언이란 각국 나라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방언은 성령의 방언으로서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영적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통역 없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서 임하며, 자기 의지와는 상관 없이 이상한 발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금해서도 안 되지만 남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방언을 크게 소리 내어 하는 것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유익한 은사입니다. 누구나 이 은사 받기를 사모하되 방언을 받은 다음에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려면 방언통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배 안 내	주 일 예 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 타 예 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 기 모 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용서는 최고의 심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그것이 내게 화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

마음은 부드러워야 하고 의지는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진리에 대해서는 굳건한 의지를 갖게 하소서!

용서는 최고의 심판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심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Do not seek the righteous, be the righteous"

의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의인이 되어라

교만이란, 나는 아프지 않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나는 아프고 남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너도 한 알의 밀알 되어, 너도 살고 남도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안 죽고 내가 살아서 남을 죽이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을 뒤따르는 길은, 죽는 길 같으나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자아에서 떠나, 사랑하는 주를 뒤따르는 성도의 발자취는

그러나 아직도, 피에 물들어 있는 발자취인 것입니다.